

오늘의 기사판

24일
영화 '사생결단' 무료시사회
=오후 7시 순천시 순천씨네900 (1관). 류승범·황정민·추자연·김희라 등 출연한 영화로, 촬영에 도움을 준 경찰서·소방서·관계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사회.
▲제 2기 죽순을 이용한 요리 전문가 양성교육 =오전 9시 담양군 향원당.
<25일>
▲제 89차 광주경제포럼 =오전 7시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송진주 주성대학 창업경영학과 교수 강사로 나서 '아일랜드 전략 36계-모르면 속수무책,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주제로 강의.
▲노화연구 기반구축협약 조인식 =오전 11시 30분 광주시청 상황실.
▲통상진흥정책 설명회 =오전 11시30분 센트럴관광호텔. 무역업체 및 유관기관 임직원 100여명 참가 예정으로 산업자원부 통상진흥정책 설명

영화 '사생결단' 무료시사회 오후 7시 순천시 순천씨네900

및 트라이 아웃센터와 금형업체 현장 방문.
▲(재)광주비엔날레 이사회 =오후 3시 광주디자인센터 회의실.
▲제 45회 도민체육대회 개회식 =오후 7시 보성군 보성공설운동장.
▲한국전력과 함께하는 희망 사랑 나눔 콘서트 =25일(화)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박세원·김수진·김주영·코리안스포니오케스트라 등 출연.
▲4인 4색 =25일(화)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김성미·이경은·오윤형·조규철·조현영 등 출연.
▲제7회 순천청소년예술축제 무용경연대회 =25일(화) 오전 9시 순천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극단 토박이 '장미여관 208호' =30일까지 평일 오후7시, 주말 오후4시~7시 광주시 궁동 민들레 소극장,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 역사

적 사건의 가해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그린 작품. 나창진·박정운·강진희씨 등 출연. 222-6280~1
▲조선대학교미술관 소장전 =5월5일까지 조선대 미술관 '만남 그리고 어울림'을 주제로 7·80년대 화가들의 작품과 조각, 서예 등 66점 전시.
▲서양화가 김상선씨 '바람소리'전 =30일까지 여수 진남문예회관 전시실. 꽃과 나무, 바람을 화폭에 담은 근작 50여점 전시.
▲인도세밀화전 =5월7일까지 목포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보성군 대원사 티벳 박물관 소장 인도세밀화 50점 전시. 인도 민속용품도 전시된다.
▲강요배 개인전 =25일까지 남봉갤러리. 제주 민중항쟁사를 주제로 연작을 발표하고 제주의 자연을 서정적으로 표현해온 강요배씨가 '땅에 스민 시간'을 주제로한 서양화 39점 전시.
▲난설 황정숙 서전 =다음달 5일까지 금남로 4

가 지하철역 메트로 갤러리. 예서와 행초서는 물론 전서, 초서, 해서, 한글 등 서체 전 부문에 걸친 65점 전시.
▲전각가 김충렬씨 '옛 기와에 새긴 꿈' =26일까지 창갤러리. 기와에 글씨를 새겨넣은 전각작품 47점 전시.

역사속의 오늘

▲러시아-터키 전쟁 일어남(1877)
▲독일과 소련, 우호중립조약 체결(1926)
▲3.1운동 33인 대표 중 1인인 이필주 제삼 때남(1932)
▲제1회 국전 열림(1950)
▲이기봉 부통령 사임(1960)
▲후르시초프, 소련 수상에 재선(1962)
▲중국, 첫 무인공위성 발사 성공(1970)
▲전남 합평에서 고구마 부정수매사건 발생(1978)
▲국어연구소, 한글맞춤법 및 표준어 개정시안 발표(1987)
▲강원도 고성에 최악의 산불(1996)

함께 풀어봅시다 < 19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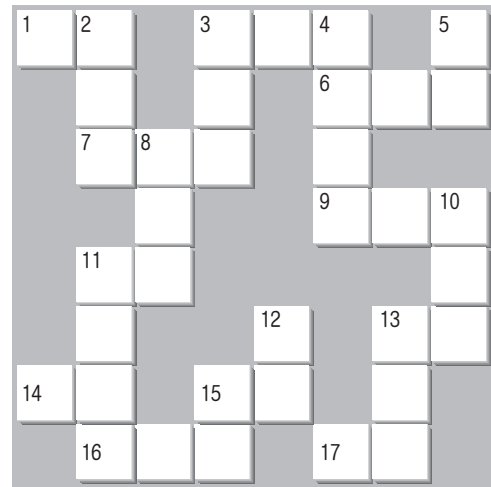
→ 가로풀이

1. 사람의 외모나 성격 등의 특징을 바탕으로 남들이 지어 부르는 이름. 3. 앞으로 주가(株價)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손해를 감수하고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입 가격 이하로 파는 일. 6. 한 가지 없애 오래 종사함으로써 그 환경의 특수한 조건에 의해 생기는 병. 광부의 규폐병, 유리 직공의 만성 기관지염 등이 대표적이다. 7. 음식을 집어 먹거나 물건을 잡는 데 쓰는 기구. 한쌍의 가늘고 짙막한 나무나 쇠붙이 등으로 만든다. 9. 물건이 쓰러지지 않게 받쳐 세우는 나무. 그는 그녀의 든든한 ~이 되어 주었다. 11. 용변을 본 후 뽀뽀를 누르면 번기 중앙에 설치된 분사구에서 물이 나와 향분을 닦아 주는 기구. 13. 지체가 높거나 권세가 있는 사

람을 하인이 높여 부르는 말. ~ 부르셨습니까? 14. 살림살이에 관한 일. 또는 집안일. ~를 돌보. 15. 수석에 다음가는 자리. 또는 그런 사람. 16. 조금 굵고 기름한 막대기. 주로 사람이나 가축을 때리는 데에 쓴다. ~로 때리다. 17. 궁둥이의 살이 두두룩한 부분. ~를 맞다.

↓ 세로풀이

2. 병태의 알을 소금에 절여 담근 젓갈. 3. 손바닥에서 다섯 개로 갈라진 하나 하나의 갈래를 이르는 말. 4. 프로 야구 등에서 1위 팀이 우승하는 데 필요한 승수(勝數)를 뜻하는 외래어. 2위 팀의 성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렇게 부른다. 5. 적을 기습하기 위해 적이 지날 만한 길목에 군사를 숨김. 또는 그 군사. 8. 일정한 공간이나 길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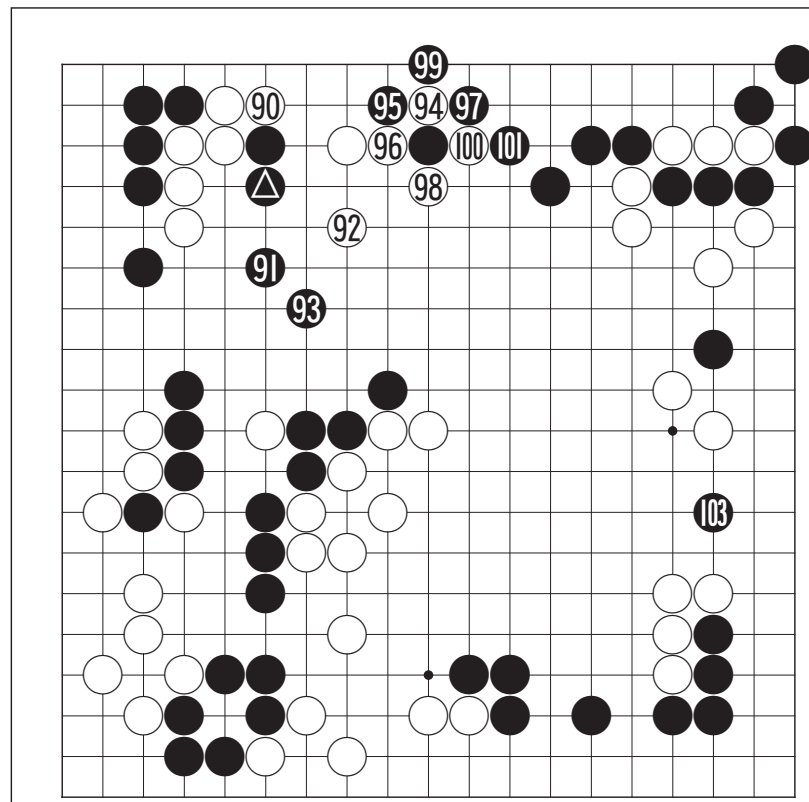


<함께 풀어봅시다 197회 정답>

맞는 사물에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양 끝에서 거의 같은 거리가 떨어져 있는 부분. 10. 사람의 음성을 다른 말로 이르는 말. 11. 완전히 잠이 들지도 잠에서 깨어나지도 않은 어렴풋한 상태. 12. 사적인 모임의 자리. 그를 ~에서 한 번 본 적이 있다. 13. 나뭇섬을 함. ⇨ 꺾하기. 15. 서로 같지 아니하고

다름. 또는 그런 정도나 상태. 성격 ~. 그녀의 말투에서 세대 ~를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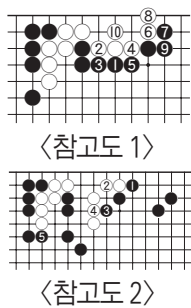
- ▲지난주 당첨자
변길자·광주시 북구 우산동
박준열·광주시 남구 봉선동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 보내시면 매 회 1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문매체부



2005 바둑마스터스 삼국지

부담없는 패 결승전 제 7보(90~103)

白 이창호(9단) <엠편> 黑 조한승(8단) <타이젠>



전보 마지막 흑 ▲가 조한승 8단이 노리고 있던 수였다. 조 8단은 91로 연속 강타를 날리고 있다. 이 수로 참고도 1의 흑 1로 누르면 백은 2 이하 10까지 살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백이 선수로 살아버리면 실리를 내준 흑이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다.
다. 그런 의미에서 흑 91은 최강의 공격이다.
이창호 9단은 자체 삶을 모색하기 위해 94로 붙여 갔다. 흑 95는 실리를 챙기면서 공격을 계속하기 위한 수. 하지만 참고도 2의 흑 1로 뒤에서 막고 5까지 크게 공격할 수도 있었다.
조 8단의 노림수는 백이 100으로 붙었을 때 101의 패로 버티겠다는 것이다. 이 패는 흑의 부담이 적은데다 103 부근에 갓감도 수두룩해 결과가 주목된다.
<오규철 9단·본지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안조영, 바둑리그 이세돌 제압

대전 신성건설의 안조영 9단이 지난 21일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KB국민은행 2006한국바둑리그전에서 서울 제일화재 소속 이세돌 9단에 199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뒀다. 신성건설은 이날 대국에서 3-1로 제일화재를 제압하고 승점 3점을 확보했다.
안 9단은 우편 전투에서 이 9단의 공격을 과감히 되받아치며 우편 백 대마를 모조리 포획, 결정적인 승기를 잡은 뒤 대국을 편안하게 마무리했다.
앞선 대국에서는 김승준 9단(신성건설)이 김해민 3단(제일화재)을 맞아 190수 끝에 백 불계승을 거뒀고 목진석 9단은 여진승을 거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632>

Sure, Go ahead
당연하죠. 그렇게 하세요

A: Are you done with this computer?
B: Yes, I've just finished my letter.
A: Can I use it just a second?
B: Sure. Go ahead.

A: 이 컴퓨터 다 사용했어?
B: 네, 이제 막 편지를 다 썼는데요.
A: 제가 잠깐 사용해도 될까요?
B: 당연하죠. 그렇게 하세요.

be done with ~ = be through with ~ : ~을 끝마치다.
May I ~? Can I ~? :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just a second(잠깐 동안) : just a minute, just a moment
be finished = be completed

오하이오 니혼고 <632>

'ジャンケン'で決めようじゃないか?
가위바위보로 결정하는게 어때?

A: なあ、朴君(パクくん)、今日(きょう)、かえりに一杯(いっぱい)やらないか?
B: そうですか、係長(かかりちょう)。いつも僕が □み代はらわされるんじゃ、かわらないですよ。
A: それじゃ、今日(きょう)は、'ジャンケン'で決(き)めようじゃないか。
B: 仕方(しかた)がないな、全(まった)くもう。はい、それじゃ、'ジャンケンポン!!' おお、勝(か)った!!

A: 여보게 박군, 오늘 돌아가는 길에 한 잔 안 할래?
B: 또 말입니까? 계장님! 언제나 제가 술값을 내게되면 너무 힘들어요.
A: 그럼, 오늘은 '가위, 바위, 보'로 정하지 않겠어?
B: 어쩔 수 없군. 정말 참! 예, 그럼 '가위, 바위, 보!!' 와, 이겼다!!

一杯(いっぱい)やる : 한잔하다
係長(かかりちょう) : 계장
のみ代(のみだい) : 술값

니하오 쑹구위 <379>

生猛
특출나다, 뛰어나다

A: 那个女孩生猛得很。上次就...
B: 是啊, 那个女孩真的很厉害。上次就...
C: 她现在还在学中文。
D: 那个女孩真的很厉害。上次就...

[한글] 생맹
뜻: 특출나다, 뛰어나다
예문: 那个女孩生猛得很, 上次就...
那个女孩真的很厉害, 上次就...

한자 이야기 <249>

症候群 (증후군)
증세 증, 물음 후, 무리 군

증후군(症候群)은 같은 증세를 나타내는 무리이다. 신드롬(syndrome)이라고도 부른다.
증(症)은 역(역: 병)+정(正:音符, 표시)으로, 병의 징후를 의미한다. 후(候)는 인(人)+후(候: 音符)로 살펴 여중다의 뜻이다. 군(群)은 양(羊)+군(君: 등글게 모이다)으로, 양이 등글게 모여 무리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증후군은 의학상 용어로 2가지 이상의 병적 증후를 함께 나타내지만 그 원인이 불분명하여 특정한 병명을 붙이지는 인과관계가 확실치 않은 경우에 사용된다.
예를 들면 '일반적증후군(一般症候群)'하면, 비좁은 비행기 좌석에서 움직이지 않고 오랫동안 앉아 있을 경우, 호흡 곤란 등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빈 동지 증후군(空巢症候群)'은 자식들 양육에 전념하던 주부가 자식이 성장하여 독립하게 되자 자신의 정체성(identity)에 대해 회의를 하면서 우울증에 빠지는 심리적 현상이다. '새집증후군'은 새 집이나 수리한 집에 입주한 뒤 전에 없던 두통이나 아토피 피부염, 천식 등의 질환에 시달리는 현상이다. 이 증후군현상은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우리는 원하던 원하지 않은 몇 가지의 증후군에 걸려있다고 하겠다.